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낙엽

김영문 브루노 신부

지탱하던 튼튼한 중심
 그 중심에서 떨어지는 추락은
 알 수 없는 곳에 버려지는 핏빛 슬픔이다

찾아와 건네는
 사람들 위로와 미소는
 오히려 스러져 가는 마음을 짓밟는 절망이다

외롭고 어두운 곳에서
 바람이 불고 가벼워지는 시간은 온다
 새롭고 자유로운 햇살을 맞이하는
 추락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날갯짓이다

빛보다 어둠이 많아진 숲길로 들어서면
 그늘진 산 하늘 높은 곳에는 붉고 푸른 꽃구름 날고
 골짜기 깊은 곳에서 어서 오라 손짓하는 억새꽃 따라
 보랏빛 새벽 그리며 오늘도 어둡고 고독한 삶의 길을 간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0/02/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36,650
 현재 기부 금액 - \$ 36,130
 현재 참가 인원 - 86명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9/28 ~ 10/12〉

강승자 스텔라, 서역원 마르띠노, 이운선 로사,
 이명희 스잔나, 이종성 마태오, 임동연 안나,
 지유선 스콜라스티카, 최민정 레지나, 탁희선 안젤라,
 이춘자 요세피나, 최정필 미카엘, 이태경 프란치스코,
 김영환 요셉, 박열 아오싱, 박익전 유리안나,
 윤법영 알베르토, 엄미숙 소화데레사, 김경화 세실리아,
 이복자 아가다, 유승일 요한, 김경희 도나다, 최주연 리나,
 조 그레이스, 성모회, 익명 **모금 총액 \$22,700**

성가 안내

입당 성가: 39 예물 준비 성가: 221, 510 성체 성가: 151, 153 파견 성가: 63

연중 제28주일(10/12)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6명	53명	203명	158명	38명	488명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성공적인 마무리와 교회 일치에 토대를 이룬

교황 바오로 6세 (1897~1978)

1967년 7월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비잔틴교회 책임자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와 교황 바오로 6세(1897~1978)가 서로 포옹하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수세기에 걸쳐 이어지던 동방과 서방교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몸짓이었으며 이에 앞서 1965년 12월 7일 동방교회에 대해 내려진 파문의 처벌(1054년) 철회가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성공적인 결실을 이끌어 낸 것과 함께 동방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 교회 일치 토대를 놓고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평화 화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던 점은 바오로 6세의 가장 큰 치적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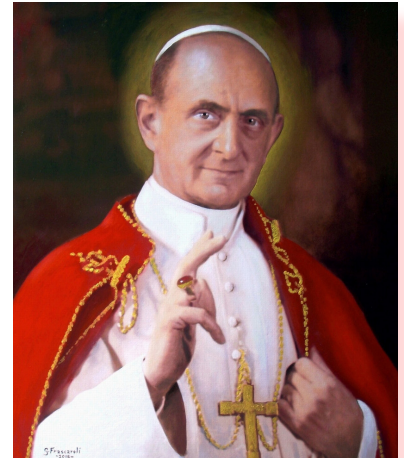
“당신들의 출발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공의회 폐회 직전 갈라진 형제들을 향한 교황의 이와 같은 발언은 1천년을 넘어서는 동방 정교회와의 분열, 또 수세기 동안 계속된 서방 프로테스탄트와의 갈등 역사 안에서 뭉클한 감격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교회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 행보는 잦아졌고, 그것은 일치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기에 충분했다.

1963년 6월 3일 교황 요한 23세가 사망한 후 6월 19일부터 시작된 교황선거에서 다섯 번째 투표가 이뤄진 6월 21일, 새 교황으로 선출된 바오로 6세는 등극 후 요한 23세 전임 교황의 뜻을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성공적 속개를 표명했고 공의회 목표로는 교회 쇄신 및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노력, 현대 세계와의 대화, 교황청 구성의 탈(脫) 이탈리아화를 통한 국제화 등을 내세웠다. 교황은 그해 9월 29일 소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회기에서 “쇄신된 교회상”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전례헌장」, 「매스미디아에 관한 교령」을 제정, 반포했다. 1964년 9월 14일 시작된 제3차 회기는 공의회 절정을 이룬 날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교황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반포를 비롯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에 관한 교령」을 발표했으며 영성체 전 공심재, 미사 때의 모국어 사용, 전례 쇄신 등을 결정했다.

바오로 6세는 많은 칙서와 헌장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도 손꼽히는데 이는 공의회 결정사항을 교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인 동시에 현대 세계에 야기된 여러 문제에 교회가 어떻게 그에 맞게 부응할 것인지 고뇌한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인구 문제, 세계 평화 문제, 과격 민주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등을 경고했으며 군비 축소를 호소했다. 첫 회칙 『그분의 교회』(1964년 8월)는 공의회 폐막 바로 전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공의회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킬 것인지 알려준 문헌으로 눈길을 끈다. 또한 『민족들의 발전』(1967년 3월 26일)에서는 “모든 발전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새로운 사태』 반포 8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회칙 『80주년』(1971년 5월 14일)은 모든 사람이 정의와 평화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오염”을 경고했다. 특히 사회 문제에 관한 회칙들 외에 『현대의 복음선교』(1975년 12월 14일)는 세속화된 세계 안에서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관련된 기본적 이념들을 설명한 것인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교황의 이 같은 입장은 자유의 개념 및 선교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시, 자유주의 신학 방법론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바오로 6세는 세계 여행을 통해 교황사에 새 장을 열었던 인물로도 기억된다. 그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사목 방문을 한 최초의 교황이며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첫 교황이다. 1964년 1월 3일간 일정으로 팔레스티나 성지를 방문, 교황 사상 처음 성지를 찾은 교황으로 기록됐으며 아시아 지역 방문, UN 본부 연설도 처음으로 시도했다. “바티칸의 포로”에서 해방돼 세계적 복음의 여행자로 나서는 가톨릭 교회 수장의 면모가 부각되는 순간들이었다. 그중에서 성지 순례와 UN 방문은 세계사 안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오로 6세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 가운데 하나로 교황청 조직을 국제화시킨 것을 꼽는



데 이는 각 지역 교회에 통치권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과거 이탈리아 출신 성직자들의 독무대가 됐던 성령 요직에 비이탈리아인들을 대거 등용시키는 인사를 감행했으며 1965년 교황 자문기관인 세계 주교대의원 회의를 발족시켰다. 이 결정은 일찍이 로마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사례였다. 추기경 숫자를 늘려 43개국을 대표하도록 하는 등 교황은 추기경 임명과 관련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로 인해 추기경 숫자는 140여 명으로 크게 증가, 교회의 보편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서임도 이때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1978년 교황의 사망 당시 추기경은 114명이었고 그중 이탈리아인은 28명뿐이었다. 바오로 6세에 의해 추진된 추기경단의 세계화는 곧이어 4백여 년의 전통을 깨고 비이탈리아인을 교황으로 출현시키는 극적 장면을 연출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현대적 요구 사항과 전통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가운데 비오 12세와 요한 23세 전임 교황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전환기 교황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큰 역할을 맡았던 바오로 6세는 그러나 바티칸 공의회 후 교회 안에 야기된 일시적 혼란, 비난들로 인해 마음고생도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오로 6세는 보편 교회를 기본적인 복음적 가치로 이끌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황직을 지켰으며 혼란의 시대에 신중한 자세로 교회를 이끌어간 교황으로 평가된다.

공지 사항

1 11월 위령성월 묘지 미사 안내

- 일시 : 11/1(토) 오후 1:00
- 장소 : Holyrood Cemetery Chapel
- 주소 : 205 NE 205th St. Shoreline WA 98155
- ACC 소식 : 현재 전체 가격에서 10% 할인 혜택. 묘지 준비를 미리 계획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입니다.
- 문의 : (206)434-5670

2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10/18(토)-10/19(주일)에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World Mission Sunday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교회로서 세례를 받고 파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구역장 회의

- 일시 : 10/19(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앙 체험 수기 모집

시애틀 성당 신자들의 신앙 체험 수기를 50주년 기념 책자에 게재하려 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량 : 2 페이지(스페이스 포함 1400자/페이지 당), 사진 1장
- 마감 일자 : 11/30/2025
- 문의 : 편집 위원장 김현숙 (206)375-5959
kimhelen6909@gmail.com

5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10/26(주일)
- 음식 봉사 : Seattle/Somerset구역
- 메뉴 : 떡국

6 Safe Environment Manager 모집

본당 Safe Environment를 관리해주시 분을 모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 기도 50만 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시사 영어 특별 강의 안내

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신자분들을 위한 강의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최신 시사 및 건강 관련 뉴스를 주제로 쉽고 친절하게 영어를 지도해 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비치)

- 일시 : 매주 금요일 11AM-12PM, 10시 미사 후
- 강사 : 송인성 베드로(PhD)
- 장소 : 101호 교리실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2독서.....로마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유영림 정명자 전유원 이승우 신 정 이명희 이천우 박원규 유애림 지유선 안창남 이운선 김대우 양요한 양성림 강승호 오세영 반성환 박명환 이용명 문범기 조항영 이정애 염왕균 이종성 안신자 신길하 신경협 홍소영 양대석 임대근 김창문 이성준 안승근 김중국 이장원 유경중 Sun Choe 【교무금 PushPay】 박소영 이로사 조희성 이진열 송승혜 이현주 강봉조 김명준 맹성호 김중태 백승진 김남순 김재현 이서영 이재용 조성욱 안마슈 안정희 구미경 김형근

【감사 헌금】 이명희 박의전 정순도 문헬렌 【달력 광고】 양준국 【꽃 봉헌】 민들레 【성소 후원 회비】 이명희

주일 헌금	교무금	PushPay	Special Collection(2차 헌금)	감사 헌금	달력 광고	꽃 봉헌
\$6,195.00	\$6,255.00	\$4,876.50	\$1,431.00	\$200.00	\$500.00	\$10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티트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티트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항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합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들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30/25) 유야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2/20/2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5년 제99차 전교 주일 담화 (2025년 10월 19일)

모든 민족을 위한 희망의 선교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 회년에 맞이하는 전교 주일의 핵심 메시지는 희망입니다(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1항 참조). 저는 ‘모든 민족을 위한 희망의 선교사’를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희망의 전령이자 희망의 건설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근본 소명을 그리스도인 저마다에게 그리고 세례 받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 전체에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전교 주일이 모든 이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한 희망으로’(1베드 1,3-4 참조) 우리를 새로 나게 하신 성실하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교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맡기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에 희망을 되살리기 위하여 파견된 교회 안에 복음화의 새 계절이 오도록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9-55항 참조).

1.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2000년 회년 이후로 제삼천년기의 첫 정기 회년을 기념하며 역사의 중심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히브 13,8)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길을 계속 고정합니다. 나자렛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당신께서 현존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과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도록 성부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파견받은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루카 4,16-21 참조).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이 신비로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특히 오로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총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삶에서 ‘두루 다니시

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과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시고’(사도 10,38 참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겹세마니 동산과 십자가 위의 고통처럼 절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겪으시며, 죄의 나약함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위한 평화의 계획인 아버지의 인류 구원 계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 드렸습니다(예레 29,11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복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모범이신 거룩한 희망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시고 친히 신비로이 동행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당신 희망의 사업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절망하고 억눌린 모든 이를 언제나 굽어보시며, “상처에 위로의 기름과 희망의 포도주를”(감사송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님”)(역자 주: 『로마 미사 경본』 [Messale Romano, 이탈리아어판], 공동 감사송 VIII)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선교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스승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 사명을 이어가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든 이를 위하여 삶을 바칩니다. 교회가 박해와 환난과 곤경에 놓일 때만이 아니라 그 지체들의 약함에서 비롯된 자신의 불완전함과 과오를 마주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교회를 다그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자신의 선교 여정을 계속 충실히 걸어가고, 고통받는 인류의 탄원과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귀 기울이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당신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시는 교회는 바로, “정적인 교회가 아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세상의 거리를 걷는 교회”(프란치스코, 세계주교시노드 정기 총회 폐막 미

사 강론, 2024.10.27.)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허락하신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모든 이를 위하여 희망의 징표이자 희망의 전령이 되는 길을 나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선교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을 온 누리에 널리 비추기를 바랍니다!

2. 만민을 위한 희망의 전달자이자 건설자인 그리스도인

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나눔으로써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리하여 희망의 전달자이자 건설자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사실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사목 헌장 1항).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회로애락과 양식을 드러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 유명한 표현은 계속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이 세상 안에서 자기 형제자매들과 함께 견도록 도와줍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간 ‘만민’(ad gentes) 선교사 여러분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당신 제자들을 보내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응답입니다(마태 28,18-20 참조). 여러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례 받은 이들이 지니는 보편 소명의 징표가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날마다 기울이는 노력으로 여러분은 만민 선교사이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희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지평은 지나가 버릴 현재 사물을 초월하고 우리가 지금도 공유하고 있는 신적 실재들에 열려 있게 해 줍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교회가 모든 이에게 하느님 자비의 선물로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 세속적인 욕망과 바람, 일, 투쟁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내재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로 완성되는 구원, 현재에서 시작되지만 영원에서 완성되는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27항).

이렇게 큰 희망에서 영감을 얻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가장 ‘발전된’ 지역들에서 인간이 마주한 위기의 심각한 증상들, 곧 팽배한 혼란, 노인의 고독과 버려짐,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주저하는 태도 등을 보여 주는 세상에서 새 인류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선진국들에서 ‘친밀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 접속되어 있지만 서로 관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율성과 물질과 야망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이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체험하는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하며 구원받은 인류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 병자들, 노인들,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회년 선포 칙서(7-15항)에서 언급 하였던 일들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도록 초대합니다. 친밀함과 연민과 온유함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127-128항 참조). 이들은 종종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들입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성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의 첫 선포의 핵심”(「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하셨습니다」, 32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희망을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 줄 수 있고(1베드 1,21 참조),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2코린 1,3-4 참조).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마음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 사랑으로 끌어당기시며 모든 이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계속하도록, 곧 온 세상을 품어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성심과 성부의 사랑의 표징이 되도록 파견받았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청 전교기구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23.6.3.).

3. 희망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오늘날 시급한 희망의 사명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 평화의 ‘장인들’이 되는 법, 자주 혼란스럽고 불행한 인류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법을 깨닫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성찬례 거행에서, 특히 전례주년의 중심이자 정점인 파스카 성삼일에 경험하는 파스카 영성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역사의 영원한 봄날을 뚜렷이 보여 주는 주님의 파스카에 동참하도록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넘치도록 가득한 희망을 지닌 ‘봄날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과 미움이 인간의 삶에서 듣게 될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기(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17.8.23. 참조) 때문입니다. 전례 거행과 성사를 통하여 재현되는 파스카 신비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힘을 길어 올려,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라는 방대한 영역에서 열정과 투지와 인내를 다하여 일합니다.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희망의 깊은 원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275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인의 책임”(「희망은 밤의 빛입니다」, 바티칸시국, 2024, 7면)인 거룩한 희망을 살아가고 증거합니다.

희망의 선교사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긴 옥살이 내내 충실한 기도와 성체성사를 통하여 받은 힘 덕분에 희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가경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응우옌 반 투안 추기경의 말을 빌리자면 ‘희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희망의 길」, 보스턴, 2001, 963면 참조). 기도는 첫째가는 선교 활동인 동시에 “희망의 첫째가는 동력”(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0.5.20.)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하기에 기도에서 시작하여,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성령께서 지으신 위대한 교향곡인 시편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

하여 희망의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4.6.19. 참조). 시편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에서도 희망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희망의 표징들을 식별하도록,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끊임없는 ‘선교’ 열망을 가지도록 단련시켜 줍니다(시편 41[40], 12; 67[66], 4 참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밝혀 주신 희망의 불꽃이 계속 살아 있게 하여, 그 불꽃이 기도의 영감을 받은 구체적인 행위와 몸짓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에게 빛과 온기를 전하는 햇불로 타올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화는 그리스도인의 희망 그 자체가 그러하듯이 언제나 공동체적인 과정입니다(「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14항 참조). 그 과정은 첫 복음 선포와 세례성사에서 끝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걷는 세례 받은 이 각자에 대한 동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전수하고 형성하는 선교 활동은 “모든 교회 활동의 패러다임”(「복음의 기쁨」, 15항), 곧 기도와 행동으로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처럼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중요성, 그리고 세례 받은 이들의 선교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하고 신설 개별 교회들을 지원하는 교황청 전교기구의 봉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젊은이, 성인과 노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삶과 기도를 통한 증언으로, 희생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의 공통된 복음화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시다. 성모님께 이번 회년과 다가올 미래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맡겨 드립니다. “이 성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빛이 모든 이에게 전하는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을 비추기를 빕니다! 또한 교회가 세계 각지에서 이 메시지를 충실히 증언하기를 빕니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6항)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5년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프란치스코